일본의 생활개선운동이 지닌 교육적 함의
- 곤 와지로의 생활론을 중심으로

오민석*·박주희**

- 목 차 -

Ⅰ. 서론
Ⅱ. 생활개선운동에 담긴 교육적 함의
Ⅲ. 생활개선을 기대했던 사람들과 생활론
Ⅳ. 곤 와지로의 생활론
Ⅴ. 여성의 자립과 과제
Ⅵ.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전개되었던 일본 생활개선운동의 선도자 5인의 생활론을 통해 여성의 자립과 지위, 그리고 교육적 의의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검토의 결과, 선도자 5인은 생활개선활동을 통해 현 생활을 중시하고 여성 자신의 손으로 획득하는 주체적인 자립과 지위향상을 도모하였다. 그 견해는 각기 상이하면서도 자기긍정감의 형성과 남녀 상호 간의 인격존중 및 상호협력하는 인격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결국, 여성이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여성자신이 습득하는 자기결정학습, 이른바 주체적 인격형성을 중시했다. 이상, 일본의

* 제1저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대우교수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생활개선운동은 일생에 걸쳐 주체적인 여성의 자립을 지향하는 임파워먼트교육이자, 여성의 자립에 반하는 사회시스템 혹은 사회적 다수자에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인격교육이었다.

주제어 생활개선운동, 주체적 자립, 인격존중, 교육, 인간형성

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실시되었던 일본의 생활개선운동에 기여한 가에츠 다카코(嘉悦孝子), 오오모리 마츠요(大森松代), 토오하타 세이치(東畑精一), 오구라 다케카즈(小倉武一), 곤 와지로(今和次郎)의 생활론을 검토하는데 있다. 즉, 가에츠 다카코를 포함한 4인의 선도자의 논고에서 여성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여성의 자립과 지위, 그리고 생활개선운동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전개되어 온 일본의 농촌재건운동은 농산물증산을 위한 기술지도에 중점을 둔 계몽활동에 한정되어 있었고, 농가생활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의 지도교육은 충분히 실시되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1948년 8월에 발족한 생활개선운동을 계기로 농가생활의 과학화·합리화에 주의가 집중되었다. 그 결과 농림성에서는 1948년과 1951년에 걸쳐 「생활개선에 관한 간담회」, 이후1951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의 유식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에 이른다.

이후 간담회 결과에 입각하여 농림성에서는 1951년 「농가생활개선추진방책」을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 하달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농촌사회의 민주화, 농업생산의 확보, 농업경영의 개선, 여성의 자립·지위향상을 최종목표로 설정함과 동시에, 이들의 실현을 위해 여성의 주체적 교육활동을 통한 생활개선운동의 전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실천하는 여성육성"이라는 생활개선운동의 기본정신에 준하여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시·명령이 아닌 가능한 여성들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로써 여성의 인간형성(character building)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생활개선운동은 주체적인 여성육성을 목표로 한 계몽교육사업으로서 여성의 자립·지위향상의 달성이 기대되었는데, 실제 어떠한 생활론이 대두되어 여성교육이 구체화되었는가? 즉, 생활개선운동의 근본이념은 가에츠 다카코, 오오모리 마츠요, 토오하타 세이치, 오구라 다케카즈, 곤 와지로의 생활론이 토대가 되어 여성의 자립·지위향상의 실현이 도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4인의 선도자의 생활개선활동과 생활론이 명백해지지 않으면, 생활개선운동의 교육적 의의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5인의 생활개선론에 착목하여 그들의 논고에 드러난 여성의 자립 혹은 지위향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고, 어떠한 생활교육이 주장되어 왔는지를 검토하여 생활개선운동의 교육적 일면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걸쳐 생활개선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곤 와지로의 생활교육론을 중심으로 그가 중시했던 여성의 자립이 실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5인의 선도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5인은 생활개선과정을 통해 여성들의 자립 및 지위향상, 그리고 인간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운동의 기초 만들기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둘째,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론에서 생활개선운동의 근본이념인 여성의 자립성·협동성의 육성을 이해할 수 있고, 동 운동이 발족한 후에도 여성들의 학습활동에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먼저, 생활개선에 기여했던 가에츠 다카코의 생활개선활동을 비롯하여 오오모리 마츠요, 토오하타 세이치, 오구라 다케카즈, 곤 와지로 4인의 선도자가 생각했던 생활론에 대하여 고찰한다. 특히, 민간의 생활교육자 곤 와지로가 실천해온 생활개선활동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전개되어온 여성의 자립 지원과 일상생활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생활개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지도했던 국가공무원인 생활개량보급원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여성의 자립과 그 과제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Ⅱ. 생활개선운동에 담긴 교육적 함의

일본의 생활개선운동은 여성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 주체적 학습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생활과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 및 협동성을 배양해왔다. 그 결과, 지역공통과제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활동에 뿌리를 둔 협동적 배움의 실현, 이른바 지역사회교육의 원동력이 되었다(吳民錫, 2009: 169).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단순히 경제상태의 곤궁함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

로 지식과 기술적 측면의 진보·향상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와 인격적 상시접촉을 구축함으로써 인격교류가 일어날 수 있었다. 즉, "주체적·협동적 배움"에 바탕을 두며 전개된 생활개선운동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해주는 것이 아닌, 함께 나누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성장을 촉진시켜온 교육이었다(新澤誠治, 2005: 55-56).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생활개선운동의 실시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우는 것은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동적 학습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배우는 행위 그 자체는 혼자만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교육적 활동은 자신만의 독단적 사고가 아닌 타인과의 상호 인적교류 가운데 인식·향상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자신만의 세계와 가치관의 정립 속에 고립되지 않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체적 학습활동을 통해 교육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생활개선운동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塚元哲 외(1977)는 동 운동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복지가 결여되어 있는 지역에 교양을 갖춘 사람이 먼저 의식적으로 들어가 정착하는 것이 먼저이고, 다음으로 이웃 주민들과 친구로서 교제하고 지역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이 조직화된다. 그 목적은 인격적 상시 접촉, 인격교류운동을 통해 지역사람들의 심신 양면의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개선과 빈곤예방사업 등 각종 사업 실시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塚元哲 외, 1977: 98).

세틀먼트 운동(Settlement movement)의 견지에서 해석 가능한 생활개선운동은 지역사회 전체의 요구에 인적교류를 활용한 여성 상호 간의

마음과 힘을 합쳐 지역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즉, 여성의 주체적 임파워먼트에 주안을 두고 힘이 부족한 여성들이 인격적 접촉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상호이해·상호신뢰, 그리고 협동(協同)정신이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인격적 접촉에 기반을 둔 생활개선운동은 여성들의 주체적·협동적 상호학습활동의 실천과정 속에서 자주성과 협동성을 육성함은 물론, 이외에도 자기긍정감, 상호존중, 젠더인식, 적극성, 경제력, 인간관계(남녀평등, 공생의식), 통합력, 활력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여성 개개인의 "인격완성"에 영향을 미쳤다(大槻優子, 2014). 다음은 생활개선활동에 참여한 여성의 인격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 모두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실행함으로써 자발성이 성장했으며 적극적으로 계획해 나가려는 것을 하려 한다. 집단사고를 통해 여성 동료들에 대한 공감과 수용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인간성을 발견하였다.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있으며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중요하게 착실히 계승하는 자세(大槻優子, 2014: 80).

자연스럽게 형성된 여성들의 연대의식 및 유대감은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생활개선운동에 있어 봉사활동은 손쉽게 자금이 필요없는 생활개선의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자금이 없다면 새로이 만들어냄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소수자에게 식생활개선, 교육, 고령자 돌봄 등을 제공하였다(中間由紀子·内田和義, 2010; 左藤寛太田美帆, 2006; 古謝瑞幸, 1967). 봉사활동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은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존재의미와 나아가 타인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자립까지 정립해나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성장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활개선운동은 여성들이 상호부조(相互扶助)의 정신에 입각하여 생활개선·지위향상, 그리고 지역 환경과 제도 개선을 돕는 사회개량운동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小田兼三: 1993: 509). 즉,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지역사회, 자연, 타인 등과 관계있는 생활개선활동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해왔다. 결국, 생활개선운동은 관념적 권리교육이나 기술교육 등 지식보급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성,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존중의 태도, 인격 고양에 중점을 둔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고정적 젠더의식을 넘어 타인의 가치 존중에 바탕을 둔 남녀의 평등·공생의식에 대한 인격완성을 도모하고 있었다.

Ⅲ. 생활개선을 기대했던 사람들과 생활론

1. 가에츠 다카코의 생활개선활동

가에츠 다카코는 메이지기(明治期, 1868~1912)부터 쇼와기(昭和期, 1955~1964)에 걸쳐 활동했던 교육자이자 생활개선운동의 실천가였다. 그녀는 실학자 요코이 쇼낭(横井小楠, 1809~1869)의 고제(高弟)였던 아버지 가에츠 우지후사(嘉悦氏房)로부터 실학·근검저축·식산흥업(殖産興業)의 교육을 받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도덕성을 중시하게 된다. 가에츠가 11살 될 무렵, 가에츠가(家)는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었고, 그녀는 다니고 있던 일신당(日新堂), 즉, 요코이 쇼낭의 문하생 다케자키 리츠지

로(竹崎律次郎)의 사설학교와 혼잔(本山)초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버지 우지후사가 경영하는 방직회사의 여공으로 일하게 됨으로써 학업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면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지는 고양될 뿐, 1887년에 상경하여 상급학교진학을 목적으로 설치된 성립학사(成立學舍)에 입학한다. 학업성적은 우수하여 2년 만에 졸업하고 여자부 조교로 채용되는 한편 고등과를 배우며 본교의 교사가 된다(志垣寬, 1955: 70). 1903년에는 현 가에츠학원(嘉悅學園)의 전신인 사립여자상업학교를 창립하고 여자교장회, 부인위생회, 소년보호부인협회에서 활약하는 등 여성교육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이처럼 여성교육자였던 가에츠 다카코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걸쳐 생활개선에 관한 계몽활동을 실천한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들의 소비경제에 대한 의식 향상과 소비경제 지식 보급을 역설해온 가에츠의 주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 지금까지 부인에게 가장 불만을 느꼈던 것은 지극히 박약한 경제사상이었다. 부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은 소비경제, 즉 매일매일 가정(家政)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인의 지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에는 경제를 독립시키는 것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嘉悅孝子, 1986: 96-97).

그 목적은 여성의 생활능력을 갖춘 경제적 자립 능력의 육성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주체성 함양과 함께, 위축되고 소극적인 여성 자신에 대한 자기 긍정성 함양을 깨달아 실천케 하려는 교육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생활교육을 강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여

성으로서의 인격은 완성할 수 없음 지적하였다(嘉悅康人, 1973).

가에츠의 생활개선활동에 대해 여성주간지 『부녀신문』(12호, 1900년 7월 30일)에 게재된 「의식주에 관한 상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본지에서는 인간이 의복을 입는 목적은 무엇인가, 의복은 "반드시 신체를 보호할 만한 위생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세웠다. 즉, ①의복전체의 중량을 양어깨에 오도록 할 것, ②신체의 어떠한 부분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 ③전신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세탁에 적합한 것, ⑤추위와 따뜻함이 적절하게 조절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⑥운동, 노동에 적합한 것, ⑦제작하기에 쉬운 것, ⑧미적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에츠 다카코는 의복을 입는 목적이 외관성·실용성·편리성에 두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위생과 보건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가정경제에 중점을 둔 실용적 생활능력향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식을 지혜로 변환가능하고 사회생활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지식을 활용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육임을 지적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가에츠는 1920년에 생활개선동맹회의 임원이 되어 문부성 다나하시 겐다로(棚橋源太郎)와 노리스기 요시히사(乘杉嘉壽), 가사경제연구회장 노구찌 야스오키(野口保興), 미와다고등여학교 미와다 모또미찌(三輪田元道),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 요시오카 야요이(吉岡弥生), 이노우에 히데코(井上秀子), 카나야 타마코(金谷珠子), 후지오카 야스코(藤岡保子) 등(江幡龜壽, 1921: 291) 교육관계자와 함께 국민생활의 개선 및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생활개선동맹회의 조사위원으로 임명되어 "일체의 낭비를 줄이고, 허식을 버리고, 한층 합리적"(江幡龜壽, 1921: 286)인 생활개선방법을 조사·제언하는 등 여성의 계몽활동에 공헌했다. 그리고 1924년

에는 야마와키 후사코(山脇房子), 요시오카 야요이와 함께 근검장려중앙위원회의 위원직을 맡았으며 지방위원회에서는 생활개선활동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가·협력을 호소함과 동시에, 국민의 근검역행(勤儉力行)하는 생활습관 육성과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였다(저자불명, 1924: 32).

2. 생활개선을 기대했던 사람들과 생활론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후의 생활개선운동은 관민의 지원 하에서 전개되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정부의 대표자를 제외하면, 지원자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교육자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생활개선관련 간담회(2회) 및 위원회(1회)에 있어 총 참가자 46명중 20명(43.5%)이 교육자였던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생활개선활동에 참여해 왔던 곤 와지로(와세다대학교수), 카가와 아야(香川綾, 여자영양학원장), 사회학자였던 오오우치 츠또무(大內力, 동경대학조교수), 후쿠다케 다다시(福武直, 동경대학조교수), 토오하타 세이치(학식경험자)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생활개선운동이 교육적 사업으로서 실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가의 적극적 노력도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생활개선운동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와 여성을 위한 추진사업인 “의식주, 민주적 가족관계, 주체적 생활형성의 개선”에 관해서였다. 또한, 생활문제에 관한 교육적 사업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 2회의 소위원회를 통한 생활개선사업의 보급조직 및 보급활동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생활개선사업을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기초 만들기에 기여한 오오모리 마츠요(大森松代)를 비롯하여 자주성과 독창성을 중시

한 토오하타 세이치, “생각하는 농민”(考える農民)을 주장했던 오구라 다케카즈(小倉武一), “생활학”이라는 학문적 접근을 시도했던 곤 와지로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걸쳐 생활개선의 보급·계몽에 생애를 바쳤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오모리 마츠요, 토오하타 세이치, 오구라 다케카즈가 생각한 여성의 자립과 지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시되어온 교육이다. 먼저, 오오모리 마츠요(1909~1999)는 쇼와기(昭和期)의 생활과학자로서 1931년에 동경여자대학 영어전공학부를 졸업하고, 이듬해 동경 YWCA에 근무하였다. 이후 1934년부터 1937년까지 미국에서 유학하고 동경 YWCA부속 스루가다이여학원(駿河台女學院) 가정부장(家政部長)에 취임하였다. 전시 하에는 싱가포르에서 번역관으로 활동하며 생활개선활동과 무관한 듯 보였지만, 전쟁 직후인 1946년 문부성교과서국 가정과지도요령편찬원근무를 계기로 생활개선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近現代日本女性人名事典編纂委員會, 2001: 376). 이어 1948년부터 1965년까지 농림성농업개량국의 초대 생활개선과장, 1965년에는 농정국 참사관에 취임하고 여성 최초의 국제연합부속기관의 과장이 되었다. 또한, 1966년에는 국제연합 FAO본부 교육훈련과장과 종합생활연구개발센터소장을 역임하였으며, 1968년까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농촌생활의 개선에 종사하는 등 생활개선사업에 진력한 여성연구자이기도 했다.

<표 1> 생활개선에 관한 간담회 및 생활개선연구문제 소위원회

개최일	생활개선에 관한 간담회 의제	출석자(직책)
1948년 11월 30일 (1회)	· 생활개선사업이 과거에 거론되면서도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 · 의복생활의 개선, 식생활의 개선, 주거방식의 개선, 가족관계와 생활형성의 개선 · 지도의 대상에 대해	곤 와지로(와세다대학교수), 사이또 후미오(愛育연구소장), 마찌다 키쿠노스케(문화복장학원), 카가와 아야(여자영양학원장), 오다시즈에(문부성체육국보건과), 에가미 후지(NHK부인과장), 야마와끼 이와오(건축사무소장), 야마누시 토시코(共同통신사), 하니 세쯔코(평가)

개최일	생활개선에 관한 간담회 의제	출석자(직책)
1951년 5월 7일 (2회)	·생활개선에 관한 연구 및 보급 활동의 당면 문제점 ·생활개선보급사업의 조직상의 문제점	1회 출석자(11명)이외에도 토오하타 세이치·타나베 시게코(학식경험자), 쿠스미 요시오·오쿠 무메오·도카노 사또코(국회의원)등을 포함하여 총24명

개최일	소위원회 의제		출석자(직책)
1951년 5월 7일	생활 개선 연구	이시이 에이노스케(위원장), 테루오카 기또우(일본노동과학연구소), 곤와지로(와세다대학교수), 토노무라 미사오(일본여자대학교수), 카가와 아야(여자영양단기대학학장), 마츠다이라 토모코(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수), 오오우치 츠또무(동경대학조교수), 후쿠다케 다다시(동경대학조교수), 무토우 시즈코(愛育연구소), 하니 세쯔코(평론가)	
1951년 5월 7일	보급 조직	유가와 모토다케(위원장), 이소베 히데토시(동경대학교수), 토가노 사또코(중의원의원), 고토우 토시코(자유당부인부장) 외 5명	
1951년 5월 7일	보급 활동	토오하타 세이치(위원장), 가와다 신이치로(동경대학조교수), 곤도 야스오(동경대학교수), 오쿠 무매오(주부연합회장) 외 6명	

(자료) 農林省大臣官房總務課(1972). 農林行政史: 第6卷.

오오모리 마츠요는 미국유학 귀국 후, 자국민의 생활의식과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우리들 자신의 생활은……구미사람들에 비해 생활 그 자체를 그다지 중히 여기지 않고, 여자를 바보같이 취급하여 여자는 집안 일만 하면 괜찮아"(全國農業改良普及協會, 1998: 14-15). 이는 여성들이 "생활을 중시 하기는 커녕 쓸데없는 것으로 조차 여기는 증거"이며, 생활의 향상과 개선을 도모하고는 있지만, 현재 자신들에 대한 자기긍정감이 결여된 생활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함을 지적하는 대목이다(全國農業改良普及協會, 1998: 15). 또한, "형식주의적인 주거방식"과 자신의 생활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개인의 판단과 책임을 중시하는 민주적 사회에 있어 "인간에게 있어 최초의 환경과 경험이자, 최고로 좋은 경험인 생활"(全國農業改良普及協會, 1998: 15)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오모리는 생활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생활개선이 시작됨을 지적하고 있으며, 생활의 주체자인 여성 한 명 한 명이 자아에 대한 고유성과 정체성

의 중시를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기대하였다. 즉, 오오모리가 생각한 생활이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개인의 생활 철학과 물질적 측면·정신적 측면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였다. 또한, 생활에 대한 현재 지향성과 긍정적 정서, 그리고 자아존중감(박숙희·김현우·한석훈, 2016: 13; 하웅용·김예성, 2016)의 향상을 기대한 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토오하타 세이치(1899~1983)는 대정기(大正期)·쇼와기의 농업경제학자이자 농정가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1922년에 동경제국대 농학부 2부를 졸업하고, 1924년에 동경제국대 조교수에 부임하였다. 이후 1926년부터 1930년까지 독일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1933년부터 1959년까지 동 학부의 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농림성농업종합연구소장(1946~1956), 농업진흥회장(1947), 농민교육협회장(1948), 농림어업기본문제조사회장(1959)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특히, 토오하타 세이치는 생활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여성 개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로서 “지역의 개성”, “농촌부인의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東畑精一, 1947: 223).

생활을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토오하타 세이치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다음 2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무능력자”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의 인권이 법률적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여성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환경조성”이 미비한 점이다. 둘째, 중앙집권적 국가지도로 인해 “지방적 개성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시되고”, 나아가 여성의 자립성과 독창성이 빼앗기고 있는 실정을 그 요인으로 들었다(東畑精一, 1947: 221). 또한 이로 인한 인간형성의 부작용에 대해 여성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3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편식적·단색적인 농가의 생활형태에 대한 제고, ②봉건적

관행과 구습의 잔존의 타파, ③고장(지방)의 것, 자기주변의 가치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한 “자신감의 상실”과 “자치적 정신 결여”의 개선을 촉구하였다(東畑精一, 1947: 225-229).

그리고 경제전문가 오구라 다케카즈(1910~2002)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934년 동경제국대 법학부를 졸업한 후 동년 농림성에 입성한다. 이후 1935년 아오모리영림국(青森營林局), 1936년 농림성 마정국(馬政局)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938년부터 1940년까지 중일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이듬해 1941년부터 1942년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주재하게 된다. 전쟁이 종료된 후에는 농정국 농정과장(1946), 농업개량보급장(1950), 농림성 농림경제국장(1952), 농산어촌생활개선연구회장(1973) 등을 역임하고, 농촌의 생활개선사업과 여성의 노동·지위향상의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특히, 종전 직후 농정과장시절에는 연합국군총사령부(GHQ)의 지령을 받아 농지개혁을 담당하고 농정차관시절에는 농업기본법 제정에 손수 관여하는 등, 전후의 농촌개혁에 발자취를 남겼다(日外アソシエーツ, 2004: 595).

오구라 다케카즈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 농가 내에서의 경험과 경영·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小倉武一, 1981: 291-294) 남편에 종속된 낮은 지위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성 노동의 현실은 과중할 뿐만 아니라, “노동에 자발성 혹은 자주성이 없다”(小倉武一, 1981: 309)는 점을 비판하였다. 특히, 여성의 자립은 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반드시 병행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개인의 경제적 독립 생활능력에 의한 경제적 자립은 가능하며, 여성의 노동이 사회적 노동의 하나로 인정·평가받아야 한다(小倉武一, 1981: 324)고 역설하였다. 이는 여성의 노동문제를 가정 내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전체의 문제로 다룸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 여성은 자립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와 같이 오오모리 마츠요, 토오하타 세이치, 오구라 다케카즈 3인의 생활론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성·자발성에 의한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통해 자립과 지위향상을 도모하였다. 즉, 여성 스스로 창의공부(創意工夫)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자립적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인격형성교육이자, 문화생활을 통해 힘을 기르고 봉건적인 가정을 민주적인 가정으로 전환하려는 생활문화교육이었다(山本松代, 1975: 50).

Ⅳ. 곤 와지로의 생활론

1. 1910년대~1940년대 전기의 생활개선활동

곤 와지로(1888~1973)는 조형학, 건축학, 고현학(考現學), 민속학, 가정학(家政學)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쳐 국민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지향한 민간의 생활학자였다. 특히, 고현학의 발상에서 성립된 생활학의 제창은 농가생활, 지역생활, 직업생활 등의 사회생활을 포괄한 종합적인 학문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으며, 생활개선운동의 토대를 이룬 학문이었다.

곤 와지로가 농가의 생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농촌의 주택과 관계가 있으며, 1912년 당시 그의 스승이었던 사토우 코이치(佐藤功一, 1878~1941)의 영향이 컸다고 일컬어진다(今和次郎, 1971: 473). 사토우 코이치는 곤 와지로에게 "지금까지 누구도 건축연구의 대상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농가의 평면을 연구함으로써 일본의 주택평면의 원형이 명

백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青森縣環境生活部縣民生活文化課縣史編さんグループ, 2007: 94)라고 조언하며 곤 와지로의 농가연구를 희구하였다. 이에 곤 와지로는 1916년에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 1875-1962)를 중심으로 한 이시구로 다다아츠(石黑忠篤, 1884-1960), 건축가 오오쿠마 요시쿠니(大熊嘉邦)와 사또우 코이치와 함께 농촌주택의 조사를 목적으로 한 백모회(白茅會)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듬해 1917년부터 사이타마현 키타아다찌군(埼玉縣北足立郡)을 시작으로 한 지역의 민가조사에 열중한다. 조사지 중에서도 민속학·지리학 연구 분야에서 중시되고 있는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쯔구이군(津久井郡) 우치고우무라(內鄕村)에서 1918년에 백모회와 향토회의 공동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곤 와지로와 사또우 코이치는 건축분야 담당자이었지만 민가와 취락지의 농촌생활과 경제활동, 사회생활, 교육, 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사하였다.

1919년에는 농상무성 과장이었던 이시구로 다다아츠가 곤 와지로에게 "농촌을 빈곤한 채로 남겨두도록 군부의 압력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시기"가 올 것이니, "그것에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농촌을 잘 봐두지"(川添登, 1982: 199)않으면 안 된다고 조사를 독려하였다. 이리하여 곤 와지로는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1919년 본격적으로 농촌연구를 시작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본 농촌의 실태를 눈과 발로 확인하였다. 1934년에는 적설지방 농가가옥 및 농촌공동작업소의 설계에 관한 연구, 야마가다현 모가미군 사케가와무라(山形縣最上郡鮭川村)조사, 동북지방농촌의 온시고우소우(恩賜鄕倉)조사를 실시하였다. 1938년에는 어촌주택의 결점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했다(內井乃生, 1988: 58).

농가의 생활개선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곤 와지로는 그 개선을 지역주민들이 즐기기 위한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했다. 문화에 대한 그의 생

각은 1926년 손수 설계한 후쿠시마현 다무라군 오오고에마치(福島縣田村郡大越町)의 오락장 설립취지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

> 처녀가 농가생활이 지겨워 도회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따라서 농촌은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도움이 되는 청년, 처녀가 부족한 현상이 있으며, 그 원인은 적지 않고 농촌에 오락위안(娛樂慰安)의 방도없이 1년을 통해 불규칙한 노동과 취미없는 생활을 좋아하지 않아……. 그들에게 적당한 오락위안의 길을 열어주고, 명랑하고 힘이 넘치는 기분으로 규칙적인 노동을 하도록 하여 계획을 밟아 광명 있는 생활에 따르도록 가장 적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오락기관의 건설을 기획하는 이유가 있다(田子健吉, 1944: 89-90).

설립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생각하고 있던 농촌의 생활개선운동은 "위안", "오락"이 가정 내에 존재하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쫓기는" 농가의 여자아이와 여성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불가결한 생활변혁사업이며, 단순히 가옥의 개선이 아닌 생활문화의 개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필할만한 점은 여성의 삶의 방식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지닌 생활의 양식, 이른바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인격의 내부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해당 문화를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문화적 일체성"이 형성됨을 의미한다(金山梨花, 2007: 244). 즉, 곤 와지로는 생활개선활동을 "빈곤탈출"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오락위안", 즉, 여성 개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정신의 형성력, 주체성·자발성, 독창력 등 교육과 관련지어 해석코자 하였다. 이처럼 여성 개인(집단)과 생활양식을 연관 지은 곤 와지로의 문화적 일체성에 대한 생각은

비록 전시였지만, 1944년에 자유학원(自由學園)의 세틀먼트(settlement) 운동과 그 교육활동에 협력을 통해 농민이 직면한 생활상의 문제에 관여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표 2> 곤 와지로의 생활개선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활동

주요활동			
1917	사이타마현 키타아다찌군, 동경부 시모기타다마군 고쿠분지무라, 나가노, 니가타, 신슈, 군마의 조사	1939	동북지방 농산어촌 주택개선조사 제2회 위원회(위원)
		1941	국민생활과학협회이사
1918	가나가와현 쯔구이군 우치고우무라	1944	홋카이도와 조선 각지 주택조사
1919	전국의 농촌주택 시찰	1949	일본여자사회교육이사회, 가정과학연구소장
1924	생활개선동맹회조사위원	1950	농촌건축연구회발족
1934	· 적설지방 농가가옥 및 농촌공동작업소 설계에 관한 연구 · 야마가다현 모가미군 사케가와무라 동북지방 조사	1951	큐슈지구탄광에서 생활지도강연
		1953	농림성 생활개선전문기술원 자격시험 심사원
		1955	농산어촌문화협회이사
1936	동북지방농산어촌주택개선조사 제1회 위원회(위원)	1956	전국 각지에서 신생활개선운동과 생활개선에 관한 강연
1938	어촌주택의 결점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1960	농어촌생활개선연구소 이사
		1972	일본생활학회 초대회장

(출처) 青森縣環境生活部縣民生活文化課縣史編さんグループ(2007). 青森縣の暮らしと建築の近代化に寄 した人々. 94.

(출처) 內井乃生(1988).「家政學より生活學へ」『家庭科學』, 55(1), 58.

이중 '5개년계획 농촌세틀먼트활동'은 곤 와지로가 자유학원의 멤버인 하니 모또코(羽仁もと子)와 토모노카이(友の會) 멤버들과 함께 실천했던 동북지방 농가생활의 합리화운동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활동내용은 마을 여성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생·조리·영양·가계부 작성법 등 생활지도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후 점차적으로 여성에 대한 생활합리화 지도뿐만이 아니라, 문맹퇴치교육, 욕실과 화장실, 조명과 창 등의 주거개선, 의복과 소지품의 관리·지도, 실험적 소규모 주택 건설을

통한 생활지도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여성(집단) 상호 간 인격교류를 매개로 이루어진 계몽활동으로서 여성 스스로의 손으로 피폐한 농촌을 재건할 수 있는 자주적·자발적 행동 촉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青森縣環境生活部縣民生活文化課縣史編さんグループ, 2007: 113-114).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생활개선활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곤 와지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다양한 생활개선활동에 종사해 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 활동을 학문으로 받아들여 생활개선사업으로 체계화하는데 진력하였다. 그러나 농가의 생활은 농민의 전근대적인 생활습관과 의식, 노동시간과 생활시간과의 부조화에 의한 빈곤 및 "생활병리"(生活病理)가 만연하는 등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산재해 있었다.

곤 와지로는 이러한 농촌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봉건의식의 인습을 타파하고,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들의 지성을 내세우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과학과 경제, 그리고 능률이라는 무기로 우리들 생활의 재출발"(青森縣環境生活部縣民生活文化課縣史編さんグループ, 2007: 89)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즉, 생활 그 자체를 실용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통해 개선하는 생활의 합리화를 목표로 한 운동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봉건적 생활습관과 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을 습득시키는 "생활혁명"이었다. 하지만, 생활개선운동을 실행하기에는 "봉건적 완성품인 농촌사람들"의 의식과 인습을 개혁하지 않는 한 실효성 있는 농가의 생활개선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곤 와지로는 <표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생활개선을 곤란하게 하는 제반문제를 "생활병리"

로 간주하고 내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과, 외과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으로 분류함으로써 생활개선운동을 저해하는 원인을 의학적으로 해석하였다(今和次郎, 1971).

곤 와지로가 문제시 한 "생활병리"는 "농민의 마음을 칭칭 얽어매고 있던 미신과 의례 등 종래의 누습(陋習)"(川添登, 1982: 192)이며 여성들의 전근대적인 의식이었다. 이중 관혼상제의 간소화와 미신을 인습병(因習病)이라고 명하고, "난병 중의 난병"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추상(抽象)을 기초로 수량적인 분석에 의한 생활의 과학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자의 입장에서 구체(具体)에서 출발(川添登, 1982: 191)하는 실천적 지도 및 교육을 통해서 생활의 혁명을 추구하였다. 곤 와지로는 "생활병리"의 해결방법으로 "①현실의 농가생활에 관계있는 사항의 조사연구, ②농가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지도, ③교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장래 생활을 건설할만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今和次郎, 1941: 7)의 삼위일체의 교육적 관점에서 여성의 의식계몽을 주장하였다. 이는 봉건적·전근대적으로 대변되는 농촌사회의 문화의식을 여성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문화적 일체성"이 사회가 기대·요구하는 일정의 공통적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적 무의식"(E. T. Hall, 1979: 215)이 인격의 일부로 내면화되는 것(Fisher, 1972; jung, 1971)에 대한 교육적 극복방법이었다.

이와 같이 연구·지도·교육의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한 곤 와지로의 생활개선론은 생활개선사업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던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농림성 등의 행정기구의 인식혼란을 필연이라고 지적하고, 각 부처의 상호조정·연락부족을 비판하였다. 예컨대, 각 부처 생활개선사업의 생활지도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문부성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상과 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설치한 공민관을 중심으로 한 생활태도를, 후생성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영양·환경·위생의 문제를 대장성(大藏省)은

저축 장려를, 각기 달리 상정하고 있었다.

<표 3> 생활개선의 실천을 저해하는 생활병리

병명	내과병(생활정신문제)	증상	외과병(물적 문제)
미신병	·주택은 신들의 둥지, 화장실과 우물을 같은 방향으로 한다. 침실과 화장실은 함부로 이용하는 것이 신에게 충의(忠義)하는 것 ·집을 밝게 하면 복이 달아난다.	의생활에서 본 증상	·작업복과 평상복과의 구별이 없다. ·세탁, 수리, 정리의 게으름 병 ·여름은 양복, 겨울은 전통의상을 입고 일을 척척 할 수 없다.
의례병	·상인은 앞치마를, 농민은 누더기를, 입는 통념 ·결혼과 장례의 경우, 구두쇠 냄새가 나게 할 수 없어 집안의 품격유지를 위한 관례상의 무리한 결혼 지원금	식생활에서 본 증상	·만복감을 맛보는 것 뿐 이라면, 영양과 맛을 음미할 필요가 없는 편식증, 식사 속도가 빠른 것. ·단조로운 식생활, 폭음폭식과 남에게 잘 보이려고 겉을 꾸미는 돈 씀씀이로 인한 가계 경제의 불안
허영병	·사교비 지출을 위한 의식주 비용의 절감 ·고가의 신부 의상	주거생활에서 본 증상	·광선 부족의 침실과 보건위생을 고려하지 않는 주방설계 ·청소와 정리의 게으름 병
에티켓경화증	·하나의 풍습만을 에티켓으로 인정하고, 다른 풍습을 부정 ·고급품이든 조악품이든 차별에서 생기는 기성의 예의범절, 에티켓으로 인한 의식의 위험성	노동과다증	·피로축적으로 인한 조로증상과 부인의 과로 때문에 자녀들 영양과 교육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노동과 근로를 구별하지 않고 노동을 인생의 꽃으로 생각한다.

(출처) 今和次郎(1971). 今和次郎集 第5~6卷.

각 부처의 방침에 대해 곤 와지로는 “마치 지도자가 없는 오케스트라” 라고 야유를 보내며(今和次郎, 1971: 502), 정부 당국의 현실을 지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여성 지도자가 준수해야만 하는 “생활개선사항(1953)”을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지도안의 주요내용은 “생활개선의 기본적 방향이나 경향도 결국에는 올바른 지식보급”(協調會農村課, 1933: 3)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즉, ①봉건적 생활양식으로부터 탈피하고 지역주민 상호 간 협동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인간형성의 교육적 사업이었다. ②여성의 교육, 건강, 과중노동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③공민관 혹은 주택개량을 시작으로 사회교육시설의 이용을 매개로 한 생활문화의 창조와 학습권의 보장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곤 와지로는 생활개선운동의 저해 요인이 농촌문화에 기인한 생활병리문제와 행정 당국의 소통부재문제에 있음을 비판하고 그 개선책을 촉구함은 물론, 생활의 향상과 개선을 위한 생활개선안을 제언하였다. 특히, 생활개선운동을 교육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생활에 입각하여 여성들의 주체적·자주적 사회교육 학습문화의 촉진을 도모하였다. 즉, 봉건적·전근대적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문화적 무의식"에 대한 교육적 극복과 생활난이라는 지역사회 공통의 문제해결에 대해 주민의 실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 "실학교육"이었다.

<표 4> 곤 와지로의 생활개선사항

제1항	생활 자재나 생활 자금을 넉넉하게 할 방책을 개인 또는 부락, 중소도시와 마을 등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착목
제2항	공민관운동 이외의 것 충실, 즉, 독서와 강연 등을 통해 또한 레크리에이션을 적정히 행하고 이른바 문화적이 되도록 자극을 주고 생활개선 촉진에 노력중인지에 착목
제3항	육체적 건강을, 다시 말해 노동 능력 자체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요양시설, 유아보호, 영양개선, 위생사항, 최근의 산아조절 등에 힘쓰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에 착목
제4항	노동력 배분에 대해 착목하고 봉건적 결함으로 보이는 부인의 입장 고양을 성적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착목
제5항	오로지 소비생활 도구에 대해 즉 의식주의 합리화, 주방개선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성적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지에 착목
제6항	관혼상제 등 종래의 소비에 대해 착목하고 그것들의 구습타파에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지에 착목

(출처) 今和次郎(1971). 今和次郎集 第6卷.

3. 생활교육자 생활개량보급원

생활개선운동의 실시에 있어 곤 와지로가 중시한 것은 지방공무원

출신의 생활개량보급원이 “문부성 사회교육계통의 각 부처에서 부인회와 성인교육 등의 명목으로 생활개선사업”(今和次郎, 1971: 459)의 생활지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었다. 생활개선보급원의 교육적 활동에 대해 곤 와지로는 “종래 습관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현장의 교육이자, 지도이며, 때로는 마치 그것은 불량아(不良兒) 교화……지력(知力)과 궁리하는 능력, 정열, 행동력, 인내력이 필요한 일” 이라고 평가하며 생활병리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1946년부터 1968년까지 생활개량보급원의 활동지원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생활개선과 생활지도를 테마로 한 강연회·좌담회 등의 개최를 통해 여성들의 의식개혁을 도모하였다.

가정학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곤 와지로는 생활현장에서의 생활개량보급원과 학교현장에서의 가정과교원을 대비적으로 파악하며 양자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먼저, 양자의 유사점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같은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이점(今和次郎, 1971: 256)에 대해서는 전자의 생활개량보급원은 자립하여 생활의 노고를 경험한 여성들을 설득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심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또한, 사회교육자로 비유되는 것과 같이 경험을 쌓는 것에 따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실제 보급원들은 여성들과 인간적 접촉을 통해 땀과 눈물을 흘림으로써 여성들을 이해하고 자신들도 사회교육자로서 인격적 성장을 한다. 이에 반해 가정과교원은 “자립적 생활습관, 생활을 위한 수입의 지출”이 “자신에게 있어서 순환하고 있는 듯한 사회생활의 체험자”가 아닌 정해진 교육내용을 “백지의 청소년들”에게 지도만 하면 그만인(今和次郎, 1971: 254-256) 입장에 있음을 비판하였다.

<표 5> 연도별 하계 강연회 주제 내용

강연회 주제			
1946	가정연구의 방향	1958	가정과교육의 방식
1947	새로운 가정생활의 양식	1959	현대에 살아있는 가정학
1948	생활의 예술화	1960	생활설계의 문제점
1949	지금부터의 가정학	1961	농촌생활의 삶의 방식
1950	가족관계 및 가정개론	1962	레저문제와 가정
1952	가정원론	1963	생활의 갈림길
1953	가정학의 다양한 문제 및 가족관계	1964	최근의 농촌생활에 대해
1954	농촌생활의 움직임, 가정원론의 구상	1965	농촌생활근대화의 제반문제
1955	의복 분류학	1966	생활의 근대화와 의식주
1956	가정학의 재검토	1967	새로운 방향을 향한 농가생활
1957	가정과와 가정부인의 입장	1968	인간과 생태학

(출처) 內井乃生(1988).「家政學より生活學へ」『家庭科學』, 55(1), 58.

결국, 가정과교원은 같은 목표를 도모하는 지도자이지만 생활양상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쓸모없는 지식으로 끝나버린다" 고 지적하며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학교교육에 대한 각성과 생활개선운동의 교육적 의의를 논하였다. 이런 곤 와지로의 생각은 보편성과 통일성을 지니지 못한 학교교육체계로부터 탈피하여 실생활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중시하는 생활교육과 그 맥을 같이 한다.

V. 여성의 자립과 과제

생활을 "자기 자신의 현실"로 인식했던 곤 와지로는 가사적노동과 사회적노동이 일체의 것이며(今和次郎, 1955: 82-83), 실생활 속에서 양자를 하나로 생각하지 않으면 여성의 노동 가치에 대해 적정한 평가는 곤

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 명 혹은 두 명의 자녀뿐인 도시의 샐러리맨 가정의 주부를 “옛날부터의 습관 그대로, 바닥날 때까지 소비하는 생활” 이라고 비판하고, 오로지 종래의 생활기술만을 이용하여 생활을 지속하는(今和次郎, 1955: 89) 도시주부의 생활 관념에 대해 변화를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도시주부에 대해 그것은 “개인 또는 일가에 제한된 행복을 구축하는 인생관”이고(今和次郎, 1955: 90), 주변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도시의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던 곤 와지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인 “이에(家)”제도에서 근대가족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삼고, 자신의 손으로 자립의 길을 개척하는 여성의 주체적인 생활상에 주목했다. 예컨대, 여성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경제적인 생활개선활동, 이른바 여성기업(起業)활동을 들 수 있다(今和次郎, 1971: 59-60). 여성의 활동에 대해 곤 와지로는 도시의 여성과 같이 남편의 월급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문제를 자신 혼자서 혹은 조직의 동료들과의 교육적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여성의 자립성·협동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즉, 주체적 자기교육활동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촉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생활이 윤택하게 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해도 여성의 노동여건과 봉건적 의식,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교육 등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곤 와지로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장기간 동안 형성되어온 이런 다양한 “문화적 무의식”이 생활개선운동의 장애요인임을 지적하고, “남녀가 상호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 돕는 인간형성”(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1999)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먼저 여성의 노동여건에 대해서는 노동가치의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가정노동과 농사작업 등의 제반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을 "사회노동과 같은 성질의 것"(今和次郎, 1971: 285-286)으로 취급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노동여건은 작업을 중시하고, 생활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생긴 결과이며, 여성의 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봉건적인 의식문화에 관해서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생활의 합리화 운동"을 방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관념"으로 인식하고, 여성의 노동과다증을 유발하는 내과적인 생활관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종래부터 여성에게 강요되어왔던 "일하라, 일하라" 라는 맹종의 도덕에서 벗어나 "노동·영양·휴양·즐거움·교양"을 조합한 생활설계를 하도록 여성의 의식개혁을 촉구하였다. 즉, 곧 와지로는 여성 자신의 판단으로 자립의 길을 결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여성의 자립과 지위향상을 위해 곧 와지로가 제언한 다른 한 가지 조건으로 "일해서 피로했기 때문이지만 휴양과 영양섭취를 통해 회복하고, 위안과 즐거움, 교양이 더하여 보다 고도의 단계의 생활"(今和次郎, 1971: 26)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여성의 장시간 노동의 단축을 전제로 한 "생존권의 주장"이고, "에너지 소비의 근로생활"에서 생활의 질의 향상을 목표삼아 "문화생활"으로의 이행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심신이 함께 건강한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윤리적인 의의가 있는 생산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한 생활이었다.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가족의 생활전반에 깊이 관계하는 일에 대해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에서 소외받아 왔고, "오로지 추상의 세계의 것만을 다루고……현실의 생활기교가 요구"(今和次郎, 1971: 24)되는 생활개선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특히, 가정생활에 있

어서 고정적 성별역할분업의식과 가사를 경시하는 남성의 편견을 바꿀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봉건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 학교교육의 근본적 반성을 촉구하였다.

Ⅵ. 결론

이상, 본 논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생활개선활동을 실천했던 선도자 5인의 생활론을 통하여 여성의 자립·지위향상, 생활개선운동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개선운동에 기여한 선도자 5인의 생활론을 검토하고, 이러한 국가정책이 단지 생활의 윤택함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여성교육사업의 하나로서 여성의 자립·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검토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에츠 다카코의 생활개선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합리적·실천적 지식습득을 목표로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실학교육을 중시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제생활에 대한 교육없이 교육의 목적, 즉 "인격완성"을 달성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들에게 가정경제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생활개선의 실행을 위해 근검역행(勤儉力行)하는 생활습관 및 여성의 의식향상을 촉구하는 등, 주체적 여성육성을 목표로 한 생활개선교육에 일생을 바쳤다.

한편, 생활개선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오오모리 마츠요·토오하타 세이치·오구라 다케카즈에 대해 검토해보면, ①오오모리는 생활을 중시하는 것부터 생활개선은 시작되며, 무엇보다 자아긍정감 및 자아정체성

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여성의 교육적 측면을 제언하였다. 나아가 스스로 창의공부(創意工夫)을 통해 스스로 실천하는 자립한 생활 만들기에 역점을 둔 생활철학·생활관점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②토오하타는 중앙집권적 의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치적 생활의식의 육성, 여성의 자립성과 독창성을 보호하는 환경 만들기의 중요성 등을 지적함으로써 가치 감정에 대한 자아성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③오오쿠라는 여성의 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여성의 자립은 성립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족 혹은 가정 내의 문제로 국한되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여성에 대한 인격존중 및 이해의 자세를 지니며 여성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여성 스스로가 노동에 대한 자발성·적극성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기긍정감이 형성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유식자들 중에서도 민간의 생활교육자였던 곤 와지로는 전근대적·봉건적 농촌문화와 인격형성의 문제점에 주목하였으며, 농가의 생활개선을 곤란하게 하는 여러 문제를 "생활병리"로 규정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들의 봉건적 생활습관 및 의식의 타파, 그리고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의 체득 등 생활자체를 실용적 기술과 지식을 목표로 한 "생활문화개선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생활병리"의 해결방법으로는 연구·지도·교육의 삼위일체론에 입각한 생활의식계몽을 촉구함으로써 "문화적 무의식"의 내재화를 경계하였다. 또한, 곤 와지로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걸쳐 농가의 생활개선을 시작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립과 생활문화의 창조 등 "윤택하고 희망찬 삶을 추구"하는 신농촌건설을 위한 생활교육지원에 진력을 다하였다. 특히, 전쟁 중에는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 몸소 생활교육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여성의 자립지원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립과

관련해서는 뿌리 깊은 봉건적 의식문화 속에서 형성된 여성의 노동가치에 대한 인식부족문제와, 젠더역할론에 입각한 학교교육의 개선 촉구를 통해 남녀 상호 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격 및 능력을 이해·수용 가능한 인간형성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교육론자 5인은 생활의 개선을 통해 여성의 자립과 지위향상, 나아가 주체적 인간형성을 기대하였다. 여성의 자립에 관한 견해는 각기 상이하면서도 현 생활을 중시하고 여성 자신의 손으로 획득하는 주체적인 자립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였다. 특히, 5인의 생활교육자들은 여성이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여성 자신이 습득하는 자기결정학습, 이른바 주체적 인격형성 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결국, 일본의 생활개선운동은 일생에 걸쳐 주체적인 여성의 자립을 지향하는 임파워먼트교육이며, 여성의 자립에 반하는 사회시스템 혹은 사회적 다수자에게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나아가 생활을 추상적인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현실”로 인식하기를 바라는 생활상의 교육, 즉, 실학적 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곤 와지로를 비롯한 5인의 활동,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전의 생활교육활동이 당시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틀 안에서 형성되었던 현모양처교육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여성이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화”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착안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전 여성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던 생활개선운동의 계몽교육활동 속에서 엿볼 수 있는 여성의 주체성 육성의 내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향후의 연구과제이다.

|참고문헌|

가에츠 다카코(嘉悅孝子), 女の務むべき道. 不明: 嘉悅學園, 1986.

가와죠에 노보루(川添登), 生活學の提唱. 東京: ドメス出版, 1982.

곤 와지로(今和次郎), 民家論 今和次郎 第2卷.. 東京: ドメス出版, 1971.

곤 와지로(今和次郎), 生活學 今和次郎 第5卷. 東京: ドメス出版, 1971.

곤 와지로(今和次郎), 生活學 今和次郎 第6卷. 東京: ドメス出版, 1971.

곤 와지로(今和次郎), 家庭科學. 家庭科學, 67(12), 東京: 不二出版, 1941.

곤 와지로(今和次郎), 家政のあり方. 東京: 相模書房, 1955.

근대일보여성인명사전편찬위원회(近現代日本女性人名事典編集委員會), 近現代日本女性人名事典.東京:ドメス出版, 2001.

농림성대신관방총무과(農林省大臣官房總務課), 農林行政史 第6卷. 東京: 農林省大臣官房總務課,, 1972.

농림성대신관방총무과(農林省大臣官房總務課), 農林行政史 第10卷. 東京: 農林省大臣官房總務課, 1973.

니치가이 아소시에츠(日外アソシエーツ), 世紀日本人人名事典 あ一せ. 東京: 日外アソシエーツ, 2004.

신자와 세이지(新澤誠治), 勞子育て支援と地域との協同(講演). 勞協センター事業団, 2005.

아오모리현 환경생활부 현민생활문화과현사그룹(青森縣環境生活部縣民生活文化課縣史さんグループ), 青森縣の暮らしと建築の近代化に寄与した人々. 青森: 青森縣, 2007.

에바타 카메쥬(江幡龜壽), 社會教育の實際的研究. 東京: 博進館, 1921.

야마모토 마츠요(山本松代), 暮らしの論理生活創造への道. 東京: ドメス出版, 1975.

오구라 다케카즈(小倉武一), 農政への社會學的接近. 東京: 農山漁村文化協會, 1981.

오다 켄죠우(小田兼三), 現代福祉學レキシコン. 東京: 雄山閣出版, 1993.

오민석(吳民錫), 農村女性の生活改善普及事業の展開と意義: アメリカと日本の比較. 早稻田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 17(1), 2009.

오츠키 유우코(大槻優子), 生活改善普及事業における普及活動と農家女性：生活改良普及員からみた農家女性の変化. 医療保健學研究, 5, 2014.

우찌이 노부(內井乃生), 家政學より生活學へ. 家庭科學, 55(1), 日本女子社會教育家庭科研究所, 1988.

전국농업개량보급협회(全國農業改良普及協會), 時代の証言. 東京: 全國農業改良普及協會, 1998.

츠카모토 아키라(塚元哲), 社會福祉事業辭典.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977.

카나야마 리카(金山梨花), ジェンダーと人格論. 社會科ジャーナル, 60, 2007.

카에츠 야스토(嘉悅康人), 嘉悅孝子伝, 東京: 浪漫, 1973.

타고 켄키치(田子健吉), 大越村. 大越町: 宗像利吉, 1944.

토오하타 세이치(東畑精一), 農地をめぐる地主と農民. 東京: 酣燈社, 1947.

협조회농촌과(協調會農村課), 農村生活改善の實際: 農村問題資料119号, 東京: 協調會, 1933.

Hall, Edward T. 저, 이와다 케이지·타니 유타카(岩田慶治·谷泰) 역, 文化を超えて. 東京: ティビーエスブリタニカ, 1979.

Carl G. Jung,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Glen H. Fisher, *Public diplomacy and the behavioral scienc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2.

<Abstract>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the General Welfare Movement in Japan

- Focusing on Wajiro GON of life theory

O, Min-suk·Park, Joo-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ts significance in personality education as well as self-reliance and status of women through life theory of 5 leaders of the general welfare movement in Japan which was developed before and after the WWII. The study result shows that the 5 leaders valued current life and contributed to independence and status improvement obtained by women themselves through the general welfare movement. Each view is different yet focuses on formation of self-affirmation and personality for mutual respect and cooperation between men and women. To realize independence of women, learning of self-decision and formation of independent personality were emphasized for women to think, act and improve their lives by themselves. The general welfare movement in Japan was an empowerment education to seek independence of women and a personality education to encourage the social system against women's independence and the majority of the society for self-reflection and awakening.

Key words : general welfare movement, self-reliance, respect for personality, character education, character building

이 논문은 2017년 9월 14일 투고되어 2017년 9월 22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7년 9월 29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